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Q&A

‘3대 선거범죄’ 엄정 단속

외국인 관광객 4월에도 200만 돌파



안동으로 간 ‘셔틀외교’

마약류 문제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익명으로 편하게 상담하세요.

익명보장 24시 전화상담

1342에서
채팅상담이
가능

마약류문제



이용방법 : 카카오톡에서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 검색
⇒ 채널추가 ⇒ 상담하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익명상담이 가능해서 정말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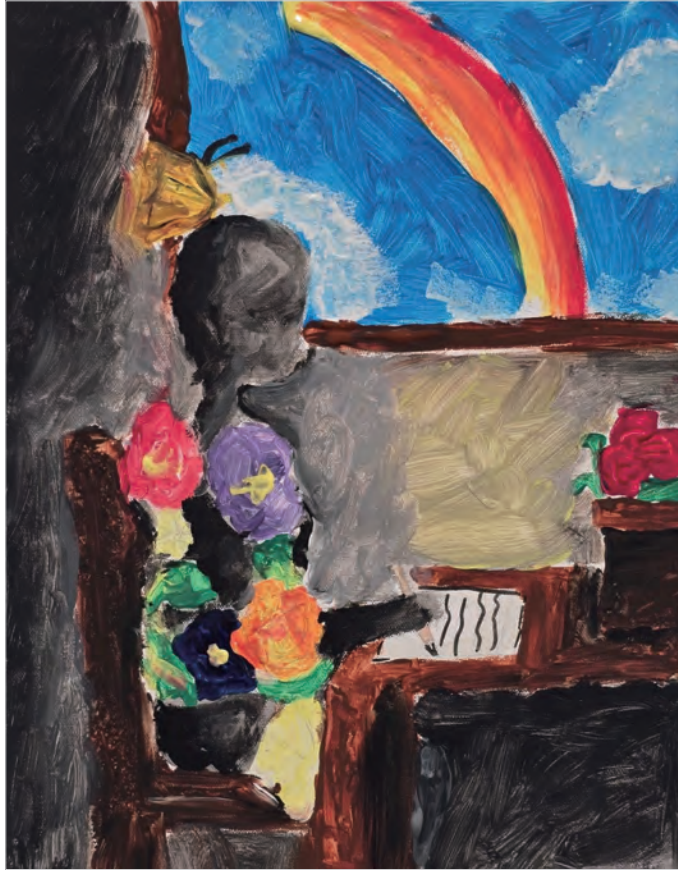
편하게 문자로 물어보세요.

1342한걸음센터
24시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힘든 그맘 아니까.



카카오톡 QR로 이용해보세요.



김도연, 12세, '돌 시인'

돌 시인의 마법

무채색의 정적이 흐르는 회색빛 공간, 묵직한 돌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어요.
 흔히 회색은 차갑고 쓸쓸한 색이라고 하지만 김도연 학생이 그려낸 공간은 평온하고 아늑해 보입니다.
 화면 중앙에서 원고지를 마주하고 있는 '돌 시인'이 이 고요한 세계의 주인공입니다.
 도연이는 돌 시인이 차분한 성격이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합니다.
 내성적인 아이의 내면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을까요.
 단단하고 무뚝뚝한 돌 시인에게서는 반전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꽃을 피우고 오색 무지개를 만들 수 있어요.
 삭막한 세상일지라도 동심과 상상력을 품고 있다면 언제든지 주변을 향기롭고
 찬란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는 예쁜 꽃과 더 큰 무지개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

글 김윤섭

예술나눔 공익재단
 아이프칠드런 이사장,
 숙명여대 겸임교수

AiF children

예술 나눔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길러주는 공익재단.

‘모두의 창업’ 열기! 정부 공모 중 역대 최대

6만 2944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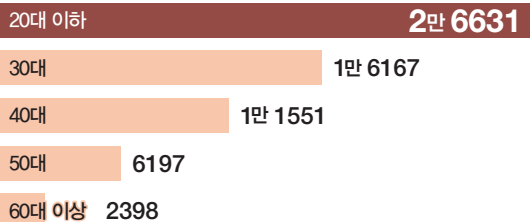
최연소 신청자

9세

최고령 신청자

90세

‘모두의 창업’ 연령별 신청자 현황 (단위: 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5일까지 진행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모 결과 6만 2944명(일반·기술 트랙 5만 1907명, 로컬 트랙 1만 1037명)이 신청을 완료해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 도전자는 총 4만 2798명으로 68%를 차지했다. 20대 이하 신청자만 42.3%에 달했고 최연소 신청자는 9세, 최고령 신청자는 90세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6.6%), 영남권(18.6%), 충청권(14.8%) 순이었다.

분야별로 일반·기술 트랙에서는 IT 분야가 28.4%로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 21.9%, 교육 7.9% 등이 뒤를 이었다. 로컬 트랙에서는 생활 분야가 64.1%로 가장 많았고 F&B 분야가 27.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반·기술 트랙 신청서 가운데 인공지능(AI) 키워드가 포함된 창업 아이디어가 두드러졌다. 총 1만 5339건으로 전체의 29.6%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전국 멘토 기관의 검증을 거쳐 6월 중 창업 인재 500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재난문자 체계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글자 수를 확대하고 유사·중복 문자 발송을 줄이는 기능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의 시범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5월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충청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 기능을 시범운영했으며 부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을 시범운영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최근 6개월간 중복 재난문자는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는 ‘안전안내문자’에만 적용된다. 다만, 신속성이 중요한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자 제한을 유지한다. 또 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기존 발송 이력을 다시 확인해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 발송을 줄일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원인 알아보기

총 **447**건 신고 (2025년)

해킹 **276**건 > 업무 과실 **110**건 > 시스템 오류 **24**건 순

2025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447건으로 전년(307건)보다 약 45.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이 전체 유출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업무 과실과 시스템 오류에 따른 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원인별 예방책 및 주요 사례를 담은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과실이 110건, 시스템 오류 24건이 뒤를 이었다.

해킹 사고 유형은 악성코드 감염이 9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웹 취약점 악용 32건,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의 2025년 조사·처분 건수는 총 227건이었다. 이 가운데 115건(과징금·과태료 1583억 원)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분으로 확인됐다. 세부 유출 원인은 업무 과실(53건), 해킹(52건), 시스템 오류(8건)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황 (단위: 건)

2025년	447
2024년	307
2023년	3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 성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3일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총 1284건, 155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9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 위반 949명, 이자제한법 위반 312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나이 미상 제외)로는 20~30대가 9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 731명, 60대 이상 129명 순이었다. 성별(미상 제외)은 남성 1213명, 여성 87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수법도 다수 적발됐다. 가족·지인 개인정보를 담보처럼 확보한 뒤 불법 추심에 활용하거나 전자제품 구매를 가장한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2025년 7월 22일)에 따라 연 60% 초과 초고금리나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경찰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 상담과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백재호 기자

불법사금융 근절 특별단속 성과

전년 대비 **19%** 증가
1553명
검거

(2025년 11월 3일~2026년 4월)



2026.05.25-31

No.856

K-공감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표지사진 청와대

발행일 2026년 5월 25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최희영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팩컴코리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r.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1
아이들이 그린 세상
돌 시인의 마법

02
숫자로 읽는 대한민국
'모두의 창업' 열기!
정부 공모 중 역대 최대 외

06
커버스토리
**안동으로 간
'셔틀외교'**

한일 정상회담 "원유·LNG 협력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터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책+

13

국정브리핑

“정부 출범 1년
초심 되새기며 마음 다잡을 때”

18

민생브리핑

“앗!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갔네”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외

23

정책플러스

강진 발생 시 3~5초 이내 알린다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158개 시·군·구로 확대

‘K-휴머노이드’ 개발 본격화

26

포커스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시작

‘3대 선거범죄’ 엄정 단속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지급액 3조 돌파

1~4월 외국인 관광객

677만 명 역대 최대

32

2026 인사이트

이교도와 이단이 전해주는 진실

35

진짜 돈 되는 정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감+

36

도전 人파서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봉탁 근로감독관

40

넷제로! 깨끗한 정책 읽기

지구와 지갑 살리는
그린카드

43

정책요약본

햇빛소득마을이

우리 마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44

어피티와 함께하는 MZ 트렌드 토크

어디까지 꾸며봤니?

‘별다꾸’ 열풍

46

정책현장

“크리에이터 미래를 지원합니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문화+

50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충남 공주 백제유적지

54

문화공감

‘노인과 바다’의 도시?

이젠 청춘의 국제도시!

58

장변의 힘이 되는 법

별점 테라에 매출 반토막

약성 리뷰 어디까지 처벌되나

60

맛있는 식담

짜장면의 변신?

범인은 사라진 돼지 기름!

62

함께 즐겨요

도서관이 된 무대

세상 모든 마이너를 품다 외

64

독자공감



60



한일 정상 고향 ‘셔틀외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5월 19일 경북 안동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를 비롯한 핵심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은 물론 한미일·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회담은 올해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한일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통한 셔틀외교가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하며 국민에 준하는 예우로 맞이했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9일
경북 안동시 한옥호텔
락고재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원유·LNG 협력 확대” 한목소리

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도 올해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의 숙소를 깜짝 방문해 영접한 바 있다. 43명으로 구성된 전통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다카이치 총리의 차량을 호위했고 호텔 현관에는 12명의 기수단이 도열했다. 이 대통령은 하늘색 넥타이를 댔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주 입는

푸른색 계열의 타이를 착용해 존중과 신뢰의 의미까지 담았다”고 말했다.

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 나와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한 이 대통령은 “이 시골 소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인사를 건넸다. 다카이치 총리도 밝은 웃음으로 이 대통령에게 화답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월 19일 경북 안동시 한 호텔에서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한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

양국 공급망 및 에너지 협력 확대

-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 평가, 양국 간 공급망 협력 확대
- 핵심 에너지원인 LNG·원유 분야 협력 강화

첨단기술 분야 협력 논의

- AI 분야 호혜적·전략적 협력 기반 강화
- 우주 탐사·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한 협력 강화

-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 등 협력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협력 논의

중동 위기·한반도 평화

-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회복에 공감
-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현안 논의
- 역내 평화와 안정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 재확인

과거사 문제

- 일본 조세이탄광에서 발굴된 유해 DNA 감정 절차 및 방법 합의

양 정상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한일, 공급망 협력 확대

정상회담은 33분간의 소인수회담과 72분간의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됐다.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공급망·에너지 안보 협력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불과 4개월 만에 이뤄진 이 뜻깊은 교류는 양국의 우정과 유대가 그만큼 두텁고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나라 현과 안동, 서로의 고향에서 시차를 두지 않는 서틀외교를 실시함으로써 이 대통령님과과의 제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서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특히 최근 중동 상

한일 정상 만찬

‘수운잡방’ 재해석한 퓨전 한식 놓고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 되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 만찬 메뉴. 안동 지역 중가의 고조리서인 ‘수운잡방’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 안동소주, 일본 나라현 사케가 올랐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9일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나눴다. 안동 한옥호텔 락고재에서 한 시간 넘게 이어진 만찬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고향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해 더욱 뜻깊다”며 “다카이치 총리 재임 이후 약 7개월 동안 네 차례 만나면서 인연도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드럼 연주를 가르쳐준 일을 언급하며 격의 없는 소통과 교감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이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만찬이 양국 교류와 우호 협력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거리에서 환영해준 안동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시내 곳곳에 걸린 선거 현수막이 일본보다 큰 점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서틀외교는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에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온천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추진되는 것이냐”고 화답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만찬상에는 안동 지역 중가의 고조리서이자 보물인 ‘수운잡방’의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한식이 올랐다. 주요 메뉴는 안동찜닭의 원형인 ‘전계야’와 안동 한우 갈비구이 등이다. 만찬주로는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상징해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안동소주와 일본 나라현의 사케를 함께 준비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고춧가루를 모두 뺀 음식으로 준비했다”면서 “안동은 내륙이라 옛날부터 생물 식재료가 귀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 국회 일정이 있어 술을 마셔야 할지 매우 고민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전화해서 하루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해볼까요?”라고 농담을 건네며 편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소비쿠폰 정책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지급 방식과 범위에 대해 직접 묻기도 했다.

이근하 기자

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까지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핵심 에

너지원인 LNG와 원유 분야의 안보 협력도 언급됐다. 양국은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에 기반해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채널을 더욱 깊이 있게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카이치 총리도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은 중요하다”며 “원유·석유 제품 및 LNG 상호 유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유 스와프는 공급 위기 시 비축분



“서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



(위)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9일 경북 안동시 한 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영접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아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월 19일 경북 안동시 한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 있는 국가가 비축유를 빌려주고 나중에 원유로 돌려받는 협력체계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석유제품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돼 개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1997년 시작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국장급 기구로 양국 관계에 따라 중단·재개가 반복돼 왔다. 국민정부정부 들어 서틀외교가 복원되면서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됐다. 이어 “동북아 지역이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세이탄광 유해 감정 ‘첫발’

아울러 양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우주 탐사와 바이오 등 첨단기술 협력도 심도 있게 다뤘다. 양국 정상은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경찰청 간에 체결된 ‘초국가 스

선물에 담긴 한일 관계

안경테 선물한 다카이치 총리, 이 대통령 안경 쓰고 '찰칵'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부부를
위해 준비한 선물.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지역의 전통 문화와 한일 우호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 하나하나에는 양국 관계의 지속과 화합을 바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5월 19일 정상회담을 위해 안동을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 조선통신사 세트, 달항아리 백자 액자 등을 선물했다.

하회탈 9종으로 구성된 목조각 액자에는 서로 다른 표정의 탈처럼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자는 의미를 담았다. 청와대는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고 양국 우호 관계 발전을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선통신사 세트에는 한지로 만든 가족가방과 홍삼이 포함됐다. 한지는 조선통신사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던 대표 교류 품목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유대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다.

백자 액자에는 양국에서 소망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달’을 형상화한 달항아리를 통해 우호 관계를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에게는 조선통신사 세트와 함께 눈꽃 기명(그릇) 세트가 전달됐다. 아연 유약과 은을 활용해 눈꽃 결정이 피어난 듯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배우자의 고향인 일본 후쿠이현의 정취를 떠올리게 했다.

국가무형유산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측에서는 안동포 흙이불을 선물했다. 삼베는 양국에서 ‘정성과 안녕’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안동하회마을 종친회 측은 미니 장승 세트를 준비했다. 장승은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우는 목상 또는 석상으로 민간신앙에서 수호신 역할을 해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양국 정상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 유명 안경 생산자인 후쿠이현 사바에 지역의 안경테를 선물했다. 일본 내각 공보실 누리소통망(SNS)에 공개된 사진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안경을 양손으로 받쳐 쓴 채 웃는 모습이 공개됐다.

일본 측은 “언제나 안경을 쓰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 다카이치 총리가 사바에의 안경테를 선물했고, 이 대통령이 직접 써보던 사이 총리가 그의 안경을 재빨리 빌려 ‘찰칵’”이라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캠범죄 공동 대응 협력각서’를 언급하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양국 국민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이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 탄광에서 발생한 갯도 붕괴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광부 183명이 사망한 사고다. 앞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세이탄광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양국 정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



한일 정상 친교 행사

이 대통령 “세계적 관광지 되겠다” 다카이치 총리 “이렇게 아름다운 불꽃놀이 난생처음”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월 19일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5월 19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경북 안동의 밤 풍경 속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격의 없는 친교를 이어갔다. 두 정상은 낙동강 위로 펼쳐지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양국의 우정과 한일 관계의 미래를 기원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 8시에 안동 하회마을을 나루터로 이동해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와 창작 판소리 공연 '흠어지는 불꽃처럼'을 감상했다. 선유줄불놀이는 부용대 절벽 꼭대기에서 낙동강을 가로질러 밧줄을 연결한 뒤 수백 개의 숯불 주머니에 불을 붙여 불꽃이 강 위로 흠날리도록 연출하는 안동의 대표 전통 풍류 문화다.

양국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낙화야”라는 외침이 울리자 줄을 타고 붉은 불꽃이 흠어지며 강물 위로 환상적인 장관이 펼쳐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신 감탄을 터뜨렸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감상을 위해 현장 조명을 끄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 덕분에 이 동네가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하게 됐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난 생처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봤다”며 “판소리도 정말 훌륭했다”고 화답했다.

이근하 기자

으로도 무궁무진하다”며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일 서틀외교의 ‘완전한 정착’을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포함해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지난 7개월 동안 무려 네 차례나 함께했다”며 “양국의 정상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서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일본의 또 다른 아름다운 지역에서 총리님을 다시 뵙고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일한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협력의 저변을 넓혀나가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강정미 기자

국정브리핑

- ▶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 ▶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 ▶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 무안공항 유해 수습 현장 방문
- ▶ 한미 정상 통화

“정부 출범 1년 초심 되새기며 마음 다잡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0일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를 그나마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를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5·18민주화운동이 그제 46주년을 맞았다”며 “계엄군의 모진 탄

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그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堂堂하게 써내려 갈 수 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앞에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질서 재편, 인구 문제, 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요소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며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이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조합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66

국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로 평가된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를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99

하는 건 좋지만, 적정한 선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상당히 극단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중간이 잘 없다. 선을 많이 들 넘는다”며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고 결국 손실로 돌아올 것임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성과 내야 할 때 허심탄회하게 의견 내달라”

이 대통령은 5월 21일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를 만나 “각각의 위원회가 갖는 본질적 기능이 있는데 의견도 모아보고 정책 대안도 만들

고 국정 상황도 체크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고 활발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은 주로 흐트러지고 비정상화된 국내 각종 시스템과 상황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적 중요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회의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 대통령 자문회의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 16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자문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공직자와 공무원을 통해 국정을 집행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여러분을 모시고 귀한 조언도 듣고 정책 제안도 받고 필요한 경우 자문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명만 받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실제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 위원회 숫자도 많고 개별 위원회를 여러 차례 만나 직접 대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제안해달라”며 “대화방을 통해서나 개별적으로 의견도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처우와 수당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며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아껴서 온 분들인데 실질적인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18 정신 이어받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헌법 전문 수록 최선”

이 대통령은 5월 18일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5·18



(왼쪽)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8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양창근 열사 묘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8일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 유해 수습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

66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하겠다.

67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원 사업을 마치고 이날 정식 개관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광장 분수대를 연단 삼아 집회를 열었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 대통령은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며 “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옛 전남도청의 K-민주주의 상징화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현

법 위에堂堂히 새겨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성지로 만들어내겠다”며 “전남도청에 오롯이 남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고 양창근 열사를 거론하면서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월의 기억과 5·18 정신은 결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불의에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이자 위기를 함께 넘어서는 연대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이름”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꿨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5·18 기념식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어 5·18묘역에 안장돼 있는 박인배·양창

근·김명숙 열사의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무안공항 유해 수습 현장 점검 “재수색 철저하게”

이 대통령은 5월 18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해 수습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무안국제공항 방문은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유해를 끝까지 수습하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먼저 참사 희생자 179명 전원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진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묵념했다. 이후 유해 수습 현장으로 이동해 김규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유해 수색 및 수습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현장 유해 수습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속하게 수습 작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위해서나 국민 경제를 위해서나 최대한 빨리 해야 할 것 아닌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수색을 철저하게 하고 기존 매뉴얼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봐달라”며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다. 무심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현장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너무나 답답하다”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참사 발생 후 16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유류품 보관소도 방문했다. 보관소에는 지난 2월 잔해물 분류 작업과 4월 이후 유해 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희생자 유류품 등이 보관돼 있다. ● 장정미 기자

한미 정상 통화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통화 “팩트시트 충실 이행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7일 대통령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7일 밤 대통령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 전반,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방중해 5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2025년 11월 체결된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6월 중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옳!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갔네”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출구를 착각해 빠져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나간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현재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온 경우라도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나들이 차량들로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 뉴스1

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이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국토부는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으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기본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신속 정비 재난특교세 200억 지원

행정안전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 공간 정보를 활용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200억 원은 불법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현장 조사와 측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해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 투기 근절! 전국 전수조사 AI·위성·드론 등 활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과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이번 전수조사는 5월 18일부터 시작해 2년 동안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5~7월에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12월에는 위반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단계에서 농지대장을 활용해 소유자와 소유 면적, 상속·이농 농지 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법인·일반법인·단체 등에 적용되는 농지 소유 제한 및 상한 면적 관련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직접 경작 농지는 실제 경작 여부를 검증하고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중점 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접근이 어려운 농지와 투기 우려가 높은 경지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드론 촬영과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됐습니다” 방미통위 사칭 이메일 주의하세요

네이버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한 과태료 사전통지 허위 공문 메일이 유포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미통위는 최근 누리집에 게시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을 도용한 네이버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해당 메일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제2026-51호)’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메일 본문에는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버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네이버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와 명의도용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특정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 링크나 버튼을 클릭하지 말고 정보도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악성 메일을 받고 사실 여부를 문의한 이용자에게 해당 메일은 사무소가 발송한 메일이 아님을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 변경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220곳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지원 84명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나선다

교육부가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현장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현장 지원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84명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이 투입된다. 전문지원단은 돌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참여 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예산 집행 및 인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

의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방학, 토요일·휴일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특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전국에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220곳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거점형 돌봄기관은 162곳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토요일·휴일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아동은 아이누리 포털 내 방과후 누리집(i-nuri.go.kr/after)에서 운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연계형 돌봄기관은 전국 58곳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 내 거점기관이 없거나 단독 돌봄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인근 기관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소규모 유치원 간 방학 중 방과후 과정 통합 운영,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저녁돌봄, 병설유치원과 초등돌봄 연계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 폐업 위험 대비 고용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5월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체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4년 폐업신고 사업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 원에 달해 수급자 수와 지급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



202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침할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충청남도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추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소재 1인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지원을 합쳐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전세계약 전 미리 위험 확인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 18일부터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 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와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상담해주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참여

한다. 이들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옛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과 군부대 등에서도 위촉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 병무민원 절차 간편해진다 민간인증서로도 본인확인 가능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재외국민의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5월 18일부터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5개 인증기관(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토스·하나은행)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나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받은 나라사랑 이메일, 모바일 신분증(재외공관 방문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장기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각종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해당 인증기관의 앱을 설치한 뒤 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여권을 준비해 앱 안내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도 편리하게 디지털 병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한기’ 비축수산물 8000톤 분다 최대 4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 15일까지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80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어기 등으로 수산물 공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번에 공급되는 정부 비축수산물은 명태 5500톤, 고등어 1000톤, 오징어 900톤, 갈치 600톤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공급 물량이 어한기 대비 정부 공급 물량 가운데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가격 상승 폭이 크거나 생산 감소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 공급 물량은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 중 탄력적으로 조절할 예정이다.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기업 간 거래(B2B)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급된다. 다만 고등어와 오징어는 전량 소비자 직판용으로 전통시장과 마트에만 공급된다.

해수부는 이번 정부 비축수산물이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등어·동태·오징어 등 일부 품목은 가공품 형태로도 공급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수산물 진열대의 생선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가가 대신 준 체불임금 강제징수 대지급금 회수기간 단축 기대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채납처분 절차로 전환된다. 또 도급 사업의 경우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 사항을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앞으로는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채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균 290일이 걸리던 대지급금 회수기간도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체불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상위 도급업체의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월 초부터 12월까지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

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지난해 4월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취수부터 제품 제조·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5월 2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 뒤 6월 초 대상 기업을 선정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제조업체 3곳과 수입판매업체 1곳이다.

기후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제품시험,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항목에는 취수원과 수원 관리, 제조공정, 위생 관리, 수질 및 용기 용출 기준 준수 여부 등 먹는샘물 제조 전반이 포함된다.

휴·폐업 잦은 요양병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이 방치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폐업과 휴업이 잦은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환자의 방대한 진료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 점검에서는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누리집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누리집을 운영하는 요양병원 가운데 개인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보안 서버 도입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조동진 기자

강진 발생 시 3~5초 이내 알린다

- ▶ 지진경보 체계 개편, 골든타임 확보
- ▶ 지진현장경보 신설, 2단계 경보 체계로
- ▶ 사각지대 최대 75% 감소 기대

강진 발생 시 진앙지 인근 주민에게 위험 상황을 더 빠르게 알리는 ‘지진 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가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어서 지진 발생 직후 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기존 지진조기경보 체계에 ‘지진현장경보’를 추가한 새로운 2단계 지진경보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진앙과 가까운 지역에서 강한 흔들림을 일으키는 지진파인 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

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후 최초 관측과 분석을 거쳐 약 5~10초 이내에 경보를 발령해왔다. 2015년 총 195개였던 지진 관측소는 2026년 1월 기준 550개까지 늘었다. 기상청은 관측망 확충을 통해 국내 지진경보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진경보 체계는 ‘1단계 지진현장경보’와 ‘2단계 지진조기경보’로 나뉜다. 먼저 1단계는 최대 예상 진도 6 이상의 강한 흔들림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지진 최초 관측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 지역 주민에 긴급재난문자(CBS)가 우선 발송된다. 경보는 시·군·구 단위로 전달되며 안전에 유의하고 추가 정보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긴다.

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전국 단위로 발령된다.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지진 발생 위치와 규모, 발생 시각 등의 정보를 담은 긴급재난문자가 전국 국민에게 전달된다.

기상청은 이번 체계 개편으로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최대 75%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앙지 인근 주민들이 몇 초라도 더 빨리 위험을 인지하고 몸을 피할 수 있어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진앙에 가까울수록 지진 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지진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지진현장경보와 지진조기경보 비교

	1단계 지진현장경보 신설	2단계 지진조기경보 기존
발령 시점	최초 관측 후 3~5초 이내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
발령 기준	최대 예상 진도 Ⅵ(6) 이상	지진 규모 5.0 이상
대상 범위	관측지점 반경 40km 이내 시·군·구	전국
주요 내용	지진동 감지 및 안전 유의 안내	상세 정보(위치·규모 등) 제공

자료 기상청

김경민 기자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158개 시·군·구로 확대

- ▶ 전국 280개 사업장 본사업 시행
- ▶ 신청 절차 없이 생필품·먹거리 신속 지원
- ▶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별도 신청이나 소득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본격 확대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300곳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실직이나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을

을 겪는 국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복지제도는 신청과 심사 과정이 길고 소득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간단한 본인 확인과 자가진단 절차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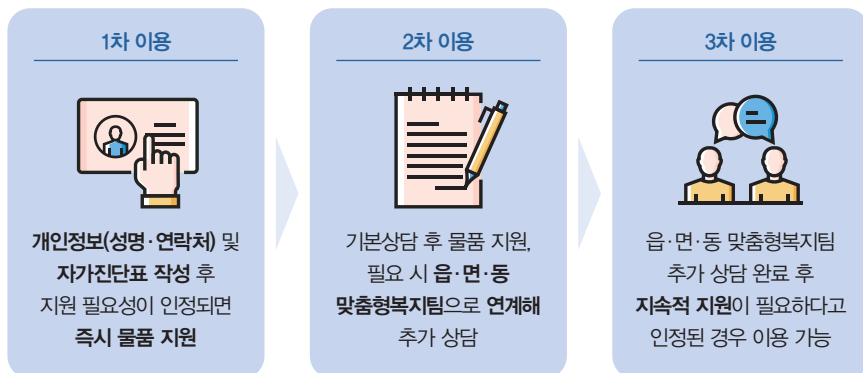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1차 이용 시 이용자가 스스로 위기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 담당자의 판단 재량도 확대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이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회 복지안전망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과도한 대기나 부적정 이용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사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 사업장은 포상하고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현장 지도와 운영 조정을 진행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김경민 기자

그냥드림 사업 이용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K-휴머노이드’ 개발 본격화 2030년까지 504억 투입

- ▶ 산·학·연·병 민관 협력체계 뒷받침
- ▶ 연구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연계
- ▶ 의료·돌봄 현장서 안전성 검증

세계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 역량을 결집한 한국형 AI 휴머노이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연구개발을 넘어 양산과 현장 실증까지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민관협력 기반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원천기술 고도화 사업(2026~2030년)’ 착수 회의를 열고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과제로 2030년까지 총 504억 원을 투입해 지능과 신체 능력을 통합한 ‘한국형 대표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이음터(AI 휴머노이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AI 등을 묶음형으로 통합 개발하고 연구 성과가 양산과 산업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격차를 조기에 줄이고 시장 선점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에는 KIST를 주관기관으로 LG전자, LG AI연구원, LG에너지솔



서울 강동구 갤럭시 로봇파크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휴머노이드. 사진 뉴스시스

루션, 로보스타, 위로보틱스 등 산업계와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학계,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참여한다.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전 주기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다.

휴머노이드 플랫폼 분야에서는 KIST가 독자 개발한 ‘KAPEX’를 기반으로 LG전자가 차세대 양산형 휴머노이드 모델을 개발한다. 위로보틱스는 공공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형 휴머노이드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다.

시각·촉각·언어·행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차세대 AI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가 사람처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계획·

수행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고안전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플랫폼에 적용해 화재 위험을 낮추고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구현에 나설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의료·돌봄 환경에서 검증된다. 연구진은 2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를 실제 현장에 투입해 생활 보조와 공공 서비스 수행 능력을 시험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세계 AI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근하 기자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시작 소득공제 혜택 최대 1800만 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가 5월 22일 시작돼 6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총 모집 자금은 6000억원. 초기 가입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고려해 판매 첫 주인 5월 28일까지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이다.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여러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됐다.

국민 모집액은 매년 6000억 원씩 5년간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6000억 원에 손실우선부담 목적의 재정 1200

억 원을 더해 7200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정부재정은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한다. 자펀드별 손실이 발생하면 20% 범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주목적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미리 발급받아 두면 더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 3000만 원 이하 4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20%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10%다.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판매사 전산 시스템 개발 현황과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계획 등을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판매 초기에 가입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산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계된 정부 시스템의 처리 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판매기간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근하 기자



이덕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5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지역금융기관장들과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 6월 11일까지 선착순 모집
- ▶ 전용계좌 가입한도 1인당 연간 1억 원
- ▶ 투자금 3000만 원 이하 소득공제율 40%

국민참여성장펀드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 은행은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아이엠뱅크·우리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부산은행 등 10곳이다. 증권사는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 등 15곳이다. 키움증권은 온라인 전용이다. 영업점 운영 여부와 온라인 판매시간은 판매사별로 확인해야 한다.

서민 전용 배정 물량이 있다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판매 첫 2주 동안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액 3800만 원 이하다. 2주 동안 판매되지 않은 서민 물량은 3주 차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환된다.

가입한도는 어떻게 되나 전용계좌와 일반계좌가 다르다. 세제혜택 대상인 전용계좌는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총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일반계좌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세제혜택 대상 계좌 가입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가입 시 실물 서류 대신 발급번호로 대체 가능한지는 판매사별로 확인해야 한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도 필요하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 일반계좌 가입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달 일정 금액씩 넣는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가 적금처럼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이 아니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하며 5년 동안 환매할 수 없다. 2026년형 펀드에 투자했다면 2027년에는 동일한 2026년형 펀드에 추가 납입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위험 등급은 어느 정도인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 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

정부 재정이 개인 투자금의 20%에 대해 손실 보전해주는 것인가 개인별 투자금액의 2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구조가 아니다. 펀드는 국민 투자금 6000억 원(선순위), 재정 1200억 원(후순위), 자펀드 운영사의 시딩 투자금(후순위)을 합산해 운용된다. 자펀드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 자금인 재정과 운용사 시딩 투자금이 국민 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정부 재정은 국민 투자금의 20% 범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를 맡는다. 다만 개별 자펀드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재정의 손실우선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펀드 규모가 총 1212억 원(국민투자금 1000억 원·재정 200억 원·운용사 시딩투자금 12억 원)일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국민 투자금 1000억 원의 20%인 200억 원 범위에서 손실을 부담한다. 개별 펀드 전체 결성액인 1212억 원의 20%(약 242억 원)를 보전하는 구조는 아니다.

금품 선거·공직자 개입 무관용 ‘3대 선거범죄’ 엄정 단속한다

정부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허위·가짜뉴스 유포와 금품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에서 4200여 명의 후보자가 경쟁하는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

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유포자 추적해 뿌리 뽑겠다”

정부는 특히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영상과 허위정보 확산 우려가 커지는 점도 주요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김 총리는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크다”며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히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범정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담화문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허위·가짜뉴스와 선거폭력, 금품선거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허위정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5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 AI 딥페이크·가짜뉴스 강력 대응
- ▶ 5월 29~30일 사전투표 실시
- ▶ 정부 “국민 불편 없는 투표 지원 총력”

“정부는 특히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까지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최근 정당이나 선거 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이나 주문을 한 뒤 금전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정부는 경찰과 협조해 관련 범죄를 엄정 수사하고 국민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나 금전 요구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감찰 활동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정당에 줄을 서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민원이 방치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투표 모의시험 등 현장 점검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준비 상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학생과 노인·장애인, 군장병 등 다양한 유권자층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요양소 관리자에게는

거소투표자의 직접·비밀투표 원칙 준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는 사전투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5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실시하며 투표용지 발급과 장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김 총리는 “국민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민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지급액 3조 돌파

- ▶ 원유 수급 8월 이후까지 비상대응 점검
- ▶ 피해 우려 업종 밀집 시·도에 130억 지원
- ▶ 고용·물류·식품 포장재 등 산업 지원 확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환율, 물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수급과 민생·산업 현장 피해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살폈다. 특히 원유 수급과 관련해 단기 확보 물량에 안주하지 말고 8월 이후까지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7월까지 예년 대비 상당 수준의 원유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쟁이 7월 이후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추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유가와 물가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민생 부담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외환시장 변동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신속 대

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19일 자정 기준 1·2차 누적 신청자는 1319만여 명으로 신청률은 36.71%, 지급액은 총 3조 7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선 1차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이었으며 이번 2차 지원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동 전쟁 영향이 우려되는 업종(섬유·플라스틱·장비·관광운송 등)이 밀집한 대구, 충북, 제주 등 8개 시·도에 총 13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버팀이음프로젝트)’을 통해 고용 둔화 가능성이 큰 지역과 업종을 선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국제물류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체국 국제 물류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식품업계의 포장재 수급 애로도 정부가 직접 챙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식품 포장재 조달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애로신고 창구를 통합 운영해 업계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

김경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1~4월 외국인 관광객 677만 명 역대 최대

- ▶ 3월 이어 4월에도 200만 명 돌파
- ▶ 4월 카드 소비액 1조 9000억 원 역대 최대
- ▶ 수도권 외 입국도 증가 추세



4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4월 한 달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3월에 이어 또 20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카드 소비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K-관광'이 국내 경기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3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1만 명)보다 19% 증가한 수치다. 올해 1~4월 누적 방한객 역시 677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558만 명) 대비 21%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5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인 관광객도 30만 명이 방한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여기에 대만(19만 명), 홍콩(7만 명) 등 중화권 시장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구미주(42만 명) 원거리 시장의 성장도 이어졌다. 고유가와 유류할증료 상승 등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동 사태 이전에 예약된 수요가 실제 입국으로 이어지면서 4월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관광객 증가 흐름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4월 한 달간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인은 3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만 명)보다 38% 늘었다. 정부는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의 국제노선을 확충하고 인천-지방 간 환승편 안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 소비 효과도 뚜렷하다. 4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온라인 포함)은 약 1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4월 누적 카드 소비액은 6조 9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 9746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국제유가와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2개월 연속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K-컬처'의 매력과 관광에 대한 범정부 지원이 상승 효과를 이룬 값진 성과"라며 "문체부는 이러한 성과가 방한 관광 시장의 외형 확대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지역 방문 및 소비 증가 등 질적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유선 기자

이 교 도 와 이 단 이 전 해 주 는 진 실

오늘도 유튜브는 맹렬하다. 그곳엔 소통의 규칙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다. 책임 있는 리더는 개인 채널의 호명과 평가에 의탁 중이다. 제왕이 후퇴한 자리, 무수한 맹주가 협력과 갈등의 지도를 그린다. 이들이 그려내는 일일드라마는 형체를 알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평판을 베어내고 밥줄을 위협하는 살풍경만큼은 확실하다. 이러니 대안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포착하기는 난망하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채널을 옮겨가며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다. 대다수는 각자의 에코챔버 안에서 성벽 밖의 이교도와 공방을 주고받는 중이다. 이들에게 공성과 수성의 전선에서 피어나는 진실은 절대 고정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지적 예민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징조를 깨닫는 법이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걸 느끼는 이들에게 생존은 이교도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편 내부에서 먼저 확보돼야 한다. 이처럼 내면의 진실을 배반하고 자기 편에 무조건 동조하는 체하는 것을 가리켜 ‘선호 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이라고 한다.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야 하는 건 최종면접장의 지원자뿐만이 아니다.

이교도가 전해주는 진실

문제는 이교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바의 진실성을 판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 투쟁을 근본에 두는 입장에서는 당장의 여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명목적으로나마 내세웠던 목표 달성에는 종종 실패하기도 한다. 일단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이교도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자각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 우리 편의 안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024년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세미나가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시작할 때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군을 그리라는 프롬프팅이 내놓은 결과물이 슈탈헬름(Stahlhelm·독일군 철모)을 쓴 아시아 여성이었다.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이라는 부정적 상징에 아시아와 여성이라는 문화적 소수자를 연결했다는 데 그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은 이 결과가 ‘생성된 이미지에 백인 남성을 털 넣으라’는 DEI(다양·평등·포용) 원칙이 알고리즘에 반영된 탓이라는 데 있었다.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한 구글의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이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확실히 망쳤다(We definitely messed up)”며 자조했다.

구글의 영리한 두뇌들이 그 기괴한 결과물을 미리 보지 못했을 리 없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곳에서 DEI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불순한 이교도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들은 진실을 말하다가 성 밖으로 내쳐질까 두려워했다. 선호 위장은 이미지 생성팀 전체의 상위 코드가 됐다. 그러다 이 집단적 환각이 외부 시장의 객관적 평가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가뜰이나 챗GPT를 따라잡아야 하는 시장 압박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이교도로 핍박받는 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됐다. 그러나 이교도가 진실을 전해주었을 때 프로젝트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판정받고 말았다.

이단이 전해주는 진실

이교도가 외부의 적이라면 이단은 내부의 적이다. 이교도가 전해주는 진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함께 온다면 이단과의 투쟁은 최소한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여지를 남긴다.



같은 대지를 밟고 있으나 상대를 이단시해 싸우는 두 사람, 프란시스코 고야의 '몽둥이를 든 두 남자의 싸움'(1820~1823).

“외부의 이교도가 던지는 돌팔매는 성벽 안의 결속을 다져주기
십상이다. 다수의 대형 채널이 지배하는 유튜브 세계에서 견고한
착란의 벽을 깨는 것은 결국 제 뒤통의 피를 흘리며 걸어 나오는
내부의 이단아들이다.”

2026년 인공지능 연구소를 휩쓴 연쇄 이탈 사태는 자본과 속도가 빚어
낸 착란에 대한 경고다. 미국 AI기업 오픈AI와 앤트로픽은 늘 안전을 입에
올렸으나 그들의 몸통은 이윤과 기득권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내부의 연
구자들은 통제되지 않은 기술의 파국을 예감했다. 그러나 거대한 질주 앞
에서 제동을 말하는 자는 진보를 가로막는 파멸론자로 낙인찍혔다. 낙인
은 곧 조직 내에서 죽음을 의미했다. 두려움에 질린 자들은 회의실에서 침
묵했고 조직은 기만적인 만장일치로 굴러갔다.

이 견고한 기만에 반기를 든 내부의 이단자들이 나타났다. 오픈AI의 조
이 히치그와 앤트로픽의 트리난크 샤르마가 스스로 짐을 썼다. 그들이 밖
을 향해 내부의 거짓을 고발했을 때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들이 회사 밖
의 이교도가 아니라 내부의 이단자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했다.

회사는 급히 새로운 대체 인재를 영입했으나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사
회적 경각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단이 전한 진실 때문에 우
리가 실패를 피할 시간적 여유를 어느 정도 확보한 셈이다.

외부의 이교도가 던지는 돌팔매는 성벽 안의 결속을 다져주기 십상이다.
다수의 대형 채널이 지배하는 유튜브 세계에서 견고한 착란의 벽을 깨는
것은 결국 제 뒤통의 피를 흘리며 걸어 나오는 내부의 이단아들이다. 이들의
고독한 단절이야말로 네임드들이 만들어낸 허구적 합의를 무너뜨릴 수 있
는 최선책이다.

첨단의 기술을 빚어내는 심장부에서도 인간 무리가 빚어내는 어리석음
과 그 굴레를 벗어나는 구도는 이토록 낡고 질기다. 하물며 ‘좋아요-구
독-후원’의 깃발 아래 하루를 연명하는 유튜브 채널과 구독자는 어떨 것
인가. 이들에게 올라타 제도권에 진입하고 국가의 백년을 좌지우지할 규
칙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또 어떠한 것인가. 사람은 밤 앞에서 비겁하고,
무리 지어 안도하며, 오직 스스로 무리를 깨고 나올 때만 간신히 진실과
대면한다. 단절을 무릅쓰고 양심의 긴장과 고통을 드러내는 이단을 찾아
오늘도 무심히 스크롤을 내려본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을 건강한 먹거리 챙겨드세요

혜택 범위

1인당 연 24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4만 8000원)

혜택 대상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원 시기

2026년 하반기

신청 방법

거주지 시·군·구 공고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임신과 출산 시기에는 먹거리에 더 신경 쓰게 되죠. 특히 채소와 과일, 유제품처럼 매일 먹는 식재료는 가능하면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려 해요.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라 부담이 돼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에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유기 가공식품 등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업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해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중단됐지만 이재명정부 국정과 제로 선정되면서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지역별로 신청 접수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제공돼요. 주문 금액의 8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총 24만 원어치를 구매하면 실제 부담 금액은 약 4만 8000원 수준이에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 규모를 더 늘린 곳도 있어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신부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예요. 다만 모든 임산부가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예요. 지역별 모집 인원과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또 보건소의 '영양플러스사업'이나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제한으로 제외될 수 있어요.

구매 품목은 다양해요. 친환경 인증 채소와 과일, 쌀, 잡곡은 물론 유제품과 유기가공식품 등도 포함돼요. 일부 지역은 축산물과 반찬류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게다가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어 임신부와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신청 기간과 운영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시·군·구(청)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해요. 지정 온라인몰과 지자체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 신청할 때는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

김경민 기자



노동감독관? 근로감독관?

?

4월 7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노동감독관은 2025년
진행된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모은
의견을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
결정한 이름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 반복되는 끼임·추락 사고,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노동권 사각지대까지 노동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정부도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며 노동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노동 현장의 최전선에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 이들이 바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이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사업장에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압수수색과 사법처리까지 맡는다. 현재 근로감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봉탁 근로감독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노동 현장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아야죠”

감독관은 전국에 총 30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송사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근로감독관의 활약이 컸다. 특히 2024년 한 방송사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이후 실시된 특별감독에서는 기존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프리랜서 PD·AD·FD 등 25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등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후 방송업계 전반으로 특별감독을 확대했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당시 특별감독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봉탁 근로감독관이다.

올해 초 그는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5년을 빛낸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활약한 감독관에게 주어지는 영예다.

2019년에는 노사관계안정 공로로 장관급 표창을 받았고 2021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우수조사관으로 선정됐다. 분쟁과 갈등이 교차하는 노동 현장에서 10여 년째 해법을 찾아온 한 감독관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만났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을 하자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
감독 과정에서 우리의 판단 때문에
누군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궁금하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해고, 노사분쟁 등과 관련한 사건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판단하고 시정 지시를 내린다.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결한다. 내가 담당하는 광역근로감독은 신고 사건 처리보다는 정기·수시·특별감독 등 감독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정기감독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독이고 수시감독은 매년 내부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진행한다. 특별감독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실시한다. 정기·수시감독은 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미리 고지하고 진행하지만 특별감독은 불시에 이뤄진다. 이후 처리 과정은 일반적인 근로감독 업무와 동일하다.

통상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하나.

부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고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1인당 연간 250~300건 정도를 맡는다.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정도 걸린다. 우리과는 신고 사건보다는 근로감독 업무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은 편이다. 야근도 많이 한다. 신고 사건 담당 부서는 한 달에 20~30시간 정도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이 몰리면 그 이상 일하기도 한다.

체력적으로 힘들겠다.

업무가 많을 때는 초과근무수당 인정 상한을 넘어 사실상 무급으로 일할 때도 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일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엇갈릴 때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다. 형사 사건은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지만 근로감독은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고 노동자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체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판단이 어렵다. 동업 관계였다가 갈등이 생기면서 “나는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특별감독은 이미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진술이 잘 나오는 편이지만 일반감독은 대상자가 회사 눈치 보며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 최대한 설득해 진술을 이끌어내야 한다.

전문성과 노하우도 갖춰야 할 것 같다.

2008년 입직해 기업지원, 취업지원, 지역협력 등 다양한 고용 분야에서 일했고 2015년부터 근로감독관 업무에 발을 들였다.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만 수십 가지다. 관련 판례와 해석까지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힘들다. 신뢰가 깨지면 조사도, 이후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감독관은 노하우가 쌓이기까지 오랜 시간

이 필요한 분야라 한번 맡으면 다른 업무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방송사 특별감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어떻게 착수한 건가.

처음에는 본청에서 지시에 따라 감독이 시작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로 나눠 조사했고 우리 팀은 후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취업 규칙이나 사내 규정을 적용받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조합과 경영지원팀,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CP 등을 면담해 방송 제작 과정과 인력 운용 구조를 파악했고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 문화 진단도 실시했다. 특별감독 결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과 직접 고용을 시정 지시했고 프리랜서 신분이라 하더라도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상 깊었던 지점을 꼽는다면.

방송사 특별감독 과정에서 만난 한 프리랜서가 몸이 아파도 시간을 내 병원에 가기 어렵고 병가 제도도 없어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데 감독 이후 이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서 연차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 누군가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근로감독은 단순히 위법 여부만 가리는 일이 아니다. 사업주가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이전에도 상을 받은 적이 있다.

장관급 표창은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사업주가 직장 폐쇄까지 단행했던 사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회사가 다시 문을 열도록 유도한 공로로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우수조사관으로 선정된 것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화해를 끌어낸 사례 덕분이었다. 노사 문제를 다루다 보면 양측의 교섭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중간에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의 속내를 모두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감독관에게는 비교적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양측 입장을 적절히 전달하며 접점을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갈등을 조율하는 만큼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다.

항상 독립적인 입장에서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을 하자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 감독 과정에서 우리의 판단 때문에 누군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요즘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나.

최근에는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외근 등으로 근무 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계산 편의를 위해 야근·휴일·연차수당 등을 미리 묶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고정OT(초과근무) 방식은 일정 시간의 초과근무를 전제로 수당을 정해 지급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고정OT를 월 30시간으로 정했는데 실제로는 35시간 일했다면 추가 5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

고유선 기자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정보센터

“임금체불, 공짜 야근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정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걱정 없이 회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비정규직 차별 등이다. 신고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고객센터센터(국번없이 1350)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접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제보 사업장 감독의 법 위반율은 85.8%로 타 감독(57%)보다 높다.

NET-ZERO!

지구와 지갑 살리는 그린카드

신규 항목 늘리고
혜택은 똑똑하게

장바구니를 챙겨 마트에 가고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는 주부, 점심식사 후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마시는 회사원.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속 녹색소비 실천의 모습이에요. 사소해 보이지만 지구를 지키는 이 행동이 더 쓸쓸한 현금성 포인트로 돌아온답니다. 바로 ‘그린카드’예요. 환경도 지키고 생활비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그린카드 활용법을 알아볼까요?

일상의 녹색 실천이 돈이 된다

그린카드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저탄소·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때마다 경제적 인센티브인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ESG 금융 상품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기관, BC카드가 운영사로 참여하는 친환경 소비 지원 제도죠.

그린카드는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실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이 카드로 ‘그린카드 에코머니 적립 대상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포인트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도 쌓을 수 있어요. 기

그린카드 사용법



그린카드
발급받고



환경표지·저탄소
인증제품을 살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전국 공공시설
이용할 때



할인 혜택
받자!

자료 그린카드 공식 누리집

그린카드 혜택

- + 환경표지·저탄소 인증제품 결제

최대 **25%** 적립

- + 대중교통 이용

10~20% 환급
(전월 실적 따라)

- + 전기차·수소차 충전, 공유 모빌리티, 버스·지하철, 고속버스, 커피전문점, 국내 일반 가맹점 결제

0.2~40% 적립
(어디로든 그린카드 특화 혜택)

- + 에너지(도시가스·전기·수도) 절감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적립과 연계

최대 **10만**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를 넘어 개인의 생존 문제로 떠오른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인 만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2025년 12월 기준 누적 발급 규모는 2447만 장에 달할 정도로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린카드를 사용할 때 함께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탄소중립포인트제'예요. 두 제도는 모두 친환경 생활 확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이에요. 반면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카드 서비스로, 친환경 제품 구매나 대중교통 이용 등에 따라 에코머니 포인트 혜택을 제공해요.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친환경 행동에 대한 보상 제도라면, 그린카드는 이를 실생활 소비와 연결해주는 금융 플랫폼에 가까워요.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일부 항목은 연동돼 함께 활용하면 혜택을 더욱 폭넓게 받을 수 있답니다.

나에게 맞는 그린카드 신청하고 혜택 누려요

그린카드의 혜택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대형마트나 생활협동조합 등 친환경 매장에서 환경표지·저탄소 인증제품을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25%를 적립받을 수 있어요. 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금액의 10~2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국립공원, 박물관, 휴양림 등 전국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 입장 또는 할인 혜택도 제공된답니다.

적립된 에코머니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의 가치를 가져요. 1000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 계좌로 인출할 수 있고, 3만 포인트 이상이면 이동통신요금이나 대중교통 결제대금 차감에도 사용할 수 있어 주부와 청년층 사이에서는 '녹색 애플카드'로 불리기도 해요.

이 작은 실천에 동참하고 싶다면 먼저 나에게 맞는 그린카드를 발급 받아야 해요. 현재 그린카드는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해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첫째,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법이에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BC카드 제휴 은행을 방문하면 안내에 따라 발급을 진행할 수 있어요. 둘째, 온라인 및 모바일





“그린카드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저탄소·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때마다 경제적 인센티브인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ESG 금융 상품이에요.”

CO₂

신청이에요. 각 카드사나 은행의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뱅킹 앱에서 ‘그린카드’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셋째,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등록해 사용하는 모바일 전용 카드 신청도 가능해요.

친환경 소비 실천할수록 혜택도 쌓여요

그린카드는 이용자의 소비 성향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 등 세 가지 형태로 발급돼요. 일반 카드 혜택까지 함께 누리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연회비 부담 없이 알뜰한 지출을 원한다면 체크카드를 선택하면 돼요. 청소년이라면 금융 기능이 없는 순수 적립용 멤버십카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카드사별 부가 혜택은 다르지만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녹색소비 적립, 공공시설 할인 같은 그린카드 기본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사용 편의성도 좋아요. 별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평소 자주 쓰는 금융 앱에서 포인트 적립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수단을 BC카드 포인트로 선택하면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로 받아 현금 전환, BC TOP 포인트 전환, 이동통신 요금·대중교통 결제, 친환경 기부, 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탄소 배출은 줄이고 생활비 절약으로도 이어지는 시대예요. 장바구니 하나, 텀블러 하나가 만드는 변화에 그린카드가 실질적인 보상을 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를 현명하게 실천하기 위해 그린카드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린카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그린카드 공식 누리집(www.green-card.co.kr)을 방문해 보세요. ●

김경민 기자



에코머니



그린카드

보유한 카드에 이 로고가 있으면
에코머니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햇빛소득마을이 우리 마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Q.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데 햇빛소득마을이 뭐야?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립 모델이야. 이미 성공 사례도 나왔어. 경기 여주시 구양리는 마을회관·창고·체육시설·주차장 등 마을의 공용 건축물 지붕·농지에 태양광발전소 6기를 설치하고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어. 수익금은 매달 1000만 원 수준인데 마을협동조합이 주민 복지를 위해 관리·운영하고 있지. 대표적인 사례가 마을버스와 마을식당 운영이야. 구양리 주민들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고 함께 모여 식사도 해. 그동안 농촌 지역의 태양광발전은 일부 주민이나 외부 투자자가 유휴농지에 발전소를 짓고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많았어. 하지만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혜택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차별화돼.

Q. 햇빛소득마을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올해까지 700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어. 3월 31일부터 1, 2차로 나눠 참여 마을을 모집하고 있고 최종 마감은 7월 31일까지야.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되면 태양광 설치비와 관련한 금융 지원, 지방정부·공공기관 유휴부지 발굴·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참여 마을을 선정할 때 주민의 주도성, 사업 계획 타당성, 마을 공동체의 투명성, 산업적·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해. 특히 인구감소지역, 송전선로 주변 지역 등에는 가점이 주어진다니까 해당 지역이라면 더 주의 깊게 공고를 살펴보는 게 좋겠지. 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정부(시·군)를 통해 제출하면 돼.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게티이미지

Q. 사업 참여 시 주의할 점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을은 먼저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의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해. 마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필수적인 절차지. 발전설비 용량은 300kW 이상 1000kW 이하여야 하고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를 반드시 국산 제품으로 써야 해. 나라에서 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만큼 꼼꼼히 준비해서 햇빛농사로 모두가 잘사는 마을을 만들면 좋겠어! ●

고유선 기자

어디까지 꾸며봤니? '별다꾸' 열풍

‘별다꾸(별걸 다 꾸민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몇 년 전만 해도 다이어리에 스티커를 붙이는 ‘다꾸’,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는 ‘폰꾸’ 정도가 익숙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못 꾸미는 게 없는 시대’가 됐어요. 가방에 키링·패치를 달아 개성을 드러내는 ‘백꾸’는 기본, 비즈와 캐릭터 파츠를 넣어 나만의 볼펜을 만드는 ‘볼꾸’, 빗을 꾸미는 ‘빗꾸’, 립밤 케이스를 꾸미는 ‘립꾸’, 에어팟 케이스를 꾸미는 ‘팟꾸’까지 등장했거든요. 새로운 꾸미기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누리소통망(SNS)에는 인증샷이 쏟아져요.

꾸미기 열풍이 이 정도로 커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대량 생산된 물건들 사이에서 나만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만큼 커진 거죠.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파츠와 스티커를 한가득 사오거나 키보드 키캡을 하나씩 바꿔 자신만의 조합을 만드는 ‘키꾸’처럼 손이 많이 갈수록 결과물도 더 특별해져요. 완성된 제품을 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고 조합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새로운 취미 문화로 자리 잡은 셈이에요. 그래서 요즘 문구점과 소품숍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MZ세대의 ‘취향 놀이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

...

by. 찬린 님



☐

꾸미기 취미의 기본 ‘다꾸’!

꾸미기 취미의 기본이라는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 아무것도 없던 빈 페이지를 채워가다 보면 나만의 세계가 완성된다. 스티커 붙이고 마스킹 테이프를 뜯고 손글씨를 쓰고 나면 마음도 차분해진다. 명상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의외로 ‘다꾸’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할 때 더 재밌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추천도 해주고 같은 스티커 다른 느낌. 취향이 드러나서 보는 재미가 있다.

▷

○

♥

...

by. 씨나 님



☐

야구 경기 승리요정 되는 법, 손톱 꾸미기?

야구 보러 가기 좋은 계절. 원래도 네일아트를 좋아했는데 야구팬들이 팀 컬러로 손톱 꾸민 걸 보고 나도 도전했다. 응원하는 팀 ‘한화 이글스’의 로고와 마스코트를 이용해 독수리의 힘찬 날개 모양을 큐빅으로 박고, 한화 상징 오렌지색도 칠해보고, 여름엔 유니폼 색인 블루로 분위기도 바꿔보고. 이렇게 경기가 있는 날 손톱을 꾸미고 가면 승리요정이 될 것 같다. 직관 가는 날은 손끝부터 들뜬다.

▷

○

♥

by. 초코모카 님



‘포카’는 무슨 재미? 꾸미는 재미도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포토카드
‘포카’를 꾸민다.
포카 한 장 한 장엔 저마다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막걸리 론칭 행사에서 받은 스티커로
한정판 막걸리 증정용 포카를 꾸미고,
팬카페 이름 발음이 ‘뽕새’처럼 들린다는 이유로
가장 아끼는 포카를 뽕새 스티커로 가득 채웠다.
‘포카’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팬 활동의 기억을 담는 작은 기록장이다.

by. ZIP 님



회사 가기 싫을 때는 출근 신발 꾸미기!

회사 출근용 크록스를 꾸며봤다.
송송 뿜는 구멍마다 좋아하는 걸 하나씩 끼워
넣었다. 최애 캐릭터인 짱구 지비츠를 달고,
여행을 좋아하니까 비행기도 달았다.
여름용으로 선글라스 긴 파인애플도 붙였다.
허전한 곳에는 풍선, 별, 곰젤리로 채웠다.
세상에 하나뿐인 출근화 완성!
덕분에 출근길이 덜 힘들어졌다.

by. 메롱이 님



스트레스 받을 때 최고! 키캡 꾸미기

스트레스 받을 때 누르려고
키캡 키링을 만들었다.
누르면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LED 불도 들어온다.
의미 있는 이니셜을 붙이고
좋아하는 식빵도 붙이고
캐릭터 장식도 글루건으로
하나씩 붙였다.
완제품을 샀을 때와는 다르게
계속 손이 간다.
가방에 달아 놓고 누르면 딸깍딸깍.
직접 만든 건 확실히 애정이 간다.
친구들 좋아하는 캐릭터로
하나씩 만들어 선물해야겠다.

by. 프레디 님



조카 때문에 시작한 ‘볼꾸’에 빠지다

조카가 요즘 유행하는
‘볼펜 꾸미기’를 해보고 싶다길래
함께 동대문 부자재 시장에 갔다.
비즈, 캐릭터 장식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조카는 신이 나서 한 시간 넘게
‘최애’ 조합을 골랐고,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없어 한참을
망설이다 야구공, 테니스 라켓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과자·음식 모양도 종류별로 가득했다.
좋아하는 걸 하나씩 담다 보니
어느새 한가득.
조카 것만 만들어줄 생각이었는데
내 것을 더 많이 사고 있었다.
어릴 적 문구점 앞에서 설레던 기분을
다시 느꼈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반값’ 스튜디오·공짜 장비에
전문가 컨설팅까지“크리에이터의
미래를 지원합니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는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서울 강서구 마곡동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의 호리존 스튜디오. 천장과 벽, 바닥이 모두 새하얀 이 공간에서 한 여성이 스탠딩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다. 카메라를 잡은 다른 한 명은 촬영 각도를 달리하며 이를 촬영했다. 조명과 소품 배치를 조금 바꾸자 같은 공간인데도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다.

바닥과 벽을 곡선으로 이어 경계를 없앤 호리존 스튜디오는 공간이 확장된 느낌을 줘 인물·제품 촬영 등에 자주 활용된다. 이곳을 찾는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건 규모와 가격이다. 일반 대여 스튜디오보다 넓고 시설 수준은 높는데 이용료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곳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대여해주는 건 물론 입주사에는 사무실,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오픈 스튜디오와 중형 스튜디오 4개, 모션캡처 및 가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유닛 스튜디오 2개를 갖추고 각종 장비 대여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2021년 서울역 인근에서 시작해 2026년 마곡 시대를 열었다. 명칭도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로 바꿨다. 개인 방송 지원을 넘어 콘텐츠 산업 전반을 키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입주사를 위한 사무공간도 34개에서 40개로 확대했다.

특수 스튜디오에 고가 장비까지

현장을 찾았을 때 내부는 예상보다 조용했다. 복도를 따라 ‘ㄱ’자 형태로 배치된 스튜디오 사이에는 장비 대여와 기술 상담을 맡고 있는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스튜디오는 공간마다 분위기가 달랐다. 중형 규모인 1번 스튜디오는



애니멀라운지 이민영 대표와 소속 크리에이터 미담이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의 호리존 스튜디오에서 음악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우드톤의 차분한 느낌이었고 2번 스튜디오는 밝은 자연 채광이 돋보였다. 흰색 커튼을 활용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배정연 대리는 “최근에는 출연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형 콘텐츠 수요가 많아 1, 2번 스튜디오는 예약이 거의 꽉 찬다”고 말했다.

각 스튜디오에는 카메라와 삼각대, 조명장비가 기본으로 갖춰져 있었다. 수십만 원대 패널 조명부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장비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촬영본을 저장할 SD카드만 챙겨오면 개인 장비 없이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장비 사용법을 몰라도 문제없다. 현장에 영상 전문가가 상주해 촬영 전후 코칭을 제공한다. 한 스태프는 “사실 스튜디오는 공간만 빌려주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전문가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수 스튜디오도 눈길을 끌었다. 유닛 스튜디오 두 곳은 각각 모션캡처 기능과 가상으로 스튜디오를 세팅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애니메이션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션캡처 기능은 사람의 움직임을 캐릭터에 그대로 반영한다. 가상 스튜디오는 배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예전처럼 크로마키 배경 스크린을 설

『크리에이티미디어 콤플렉스는
매년 상·하반기에 입주사를 모집한다.
올해 하반기 모집은 7~8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스튜디오 이용료

구분		규모	금액
유닛 스튜디오	2개	약 10평(33㎡)	• 2만 7500원/반일 • 5만 5000원/전일
멀티(중형) 스튜디오	4개	약 20~30평 (66~99㎡)	• 5만 5000원/반일 • 11만 원/전일
오픈 스튜디오	1개	약 40평(132㎡)	• 11만 원/반일 • 22만 원/전일

자료 크리에이티미디어 콤플렉스



(위) 크리에이티미디어 콤플렉스의 2번 스튜디오는 각종 토크쇼, 라이브 커머스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아래) 오픈스튜디오 조정실에서는 스튜디오에 설치된 음향,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치한 뒤 합성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용자는 원하는 배경을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다.

주방 시설을 갖춘 쿠킹 스튜디오도 있다. 오븐, 전자레인지, 밥솥은 물론 각종 조리도구까지 일반 가정집 못지않게 갖춰져 있다. 벽면의 인테리어를 다르게 구성해 카메라 방향만 돌리면 전혀 다른 공간처럼 연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흥미로웠다.

30여 명 수용 가능한 오픈 스튜디오도

크리에이티미디어 콤플렉스는 마곡으로 이전하며 중형 스튜디오를 늘렸다.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배 대리는 “예전에는 10평(33㎡) 안팎의 작은 스튜디오가 많았는데 ‘작은 촬영은 집에서도 가능하니 중형 공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 비중을 늘렸다”고 말했다.

모든 스튜디오는 반일 또는 전일제로 대여할 수 있다. 반일제는 두 타임으로 나뉜다. 전일제(오전 10시~오후 9시) 이용료는 5만 5000원부터 22만 원이다. 반일제(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4~9시) 이용료는 전일제의 절반 수준이다. 가장 큰 오픈 스튜디오는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약 40평(132㎡) 정도다. 강연, 팬미팅, 공개방송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다. 스튜디오 예약은 크리에이티미디어 콤플렉스 누리집(meplex.co.kr)에서 할 수 있으며 입주사가 아니더라도 사설 스튜디오 이용료의 절반 수준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파격적이다. 입주는 스튜디오 무료 이용 쿠폰 80장을 제공한다. 또 일반 이용자는 한 달치만 예약을 할 수 있는 반면 입주사는 두 달치 예약을 미리 할 수 있다.

사무실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다. 사무실 유형은 세 가지로 각각 최대 4~12인까지 쓸 수

있다. 임대료는 관리비 포함 월 11만 원에서 44만 원이다.

2025년 입주한 콘텐츠 기업 ‘애니멀라운지’의 이민영 대표는 “예전에는 서울 마포에서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을 월 200만 원 정도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44만 원 수준”이라며 “임대료와 스튜디오 대여비를 모두 합치면 연간 3000만~4000만 원 정도는 절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비를 들고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콘텐츠 제작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법률적 지원이나 각종 지원사업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해외 진출·투자 유치 관련 컨설팅도

입주 기업에는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관련 컨설팅도 제공된다. 실제로 2023년에는 국내 금융사와 협력해 3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했다. 한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최초로 엔비디아 등에서 15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트

웹랩스’도 1기 입주 기업이다. 배 대리는 “사업 초기 인프라 지원과 각종 사업 연계를 통해 트웹랩스의 성장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 이곳 스튜디오와 시설 누적 이용자는 1만 6666명. 지금까지 총 92개 스타트업이 입주 지원을 받았다. 입주 기업이 거둔 누적 매출은 약 613억 원, 국내외 투자 유치 규모는 1578억 원에 달한다. 신규 고용 인원도 280명을 넘어섰다.

크리에이티브미디어 콤플렉스는 매년 상·하반기에 입주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크리에이티브미디어를 기반으로 타 사업과 결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등이다. 입주 기간은 최대 2년. 경쟁률은 평균 3대 1에서 5대 1 수준이다.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장비와 공간 확보가 절실한 만큼 입주 기간 연장을 문의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입주사 선정은 끝났고 하반기 모집은 7~8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

고유선 기자

크리에이티브미디어 콤플렉스 입주사를 위한 라운지. 혼자 또는 그룹으로 일하거나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소파 등이 곳곳에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금 강 따 라 백 제 의 시 간 속 을 걷 다

충남 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 왕릉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주 백제유적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격년제로 선정해 알리는 '한국관광 100선'에 7회 연속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 역사 탐방 필수 코스다. 금강을 따라 펼쳐진 옛 산성,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압도적인 왕릉원은 단연컨대 열두 달 중 신록으로 덮여가는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중흥기의 고도(古都) '웅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 웅진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 멸망까지 678년간 이어진 고대국가다. '잃어버린 왕국'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백제는 일찍이 수도였던 한성(서울)을 중심으로 주변국과 활발히 교류하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인 '글로벌 국가'였고 두 번의 천도(遷都)를 거치면서도 수준 높은 고유 문화를 꽃피워낸 문화 강국이었다. 특히 무령왕으로 대표되는 웅진 시기는 백제 중흥기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해가 지고 공주 공산성에 조명이 켜지면 잔잔한
금강 위로 또 하나의 공산성이 떠오른다.
1500여 년의 세월을 버텨낸 성곽길이 공주라는
도시의 뼈대를 잇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공주 공산성’(이하 공산성)이다. 공산성은 고구려에 밀려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 문주왕이 축조한 포곡식(包谷式) 산성이다. 산봉우리와 계곡을 따라 성벽을 쌓은 구조로 금강과 어우러진 모습이 천연 요새를 연상시킨다. 여러 차례 보수와 개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는데 처음엔 ‘웅진성’이라고 했다가 고려시대 이후에 공산성이라고 불렸다.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도 불렸다.

공산성의 진짜 매력은 성곽길이다. 금강을 따라 이어지는 능선과 계곡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백제의 시간에 흠뻑 빠져들 수 있다. 웅진시기(475~538) 축조된 공산성은 성벽 길이만 약 2660m에 달한다. 문주왕부터 성왕 시기까지는 백제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했고 이후에는 지방 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입구(입장료 3000원)에서부터 성곽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 한 바퀴 도는 데 1~2시간 걸린다. 초반에는 오르막

1971년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도중 한 인부의 삽자루 끝에 단단한 물체가 닿아 파내다 보니 가지런히 쌓인 벽돌들이 드러났다. 이후 발굴 작업을 거쳐 백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4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1 공산성 성곽길은 총 2660m로 한 바퀴 도는 데 1~2시간 소요된다. 사진 뉴시스
2 충청권역과 한강 이남 수도권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국립공주박물관의 '충청권역수장고'. 3 무령왕릉 출토유물을 만날 수 있는 국립공주박물관 내부. 사진 C영상미디어

과 내리막이 이어지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평탄한 흙길이 나타난다. 특히 북쪽 구간은 금강과 맞닿아 있어 전망이 좋다. 절벽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바라보며 걸으면 그리 힘들게 느껴지진 않는다. 금강이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방향에 따라 산성 아랫마을이 발아래 걸리기도 한다. 금강은 지금의 공주 시민뿐 아니라 백제인에게도 젖줄이자 생명수였고 백제의 부흥과 패망을 가져온 역사의 물길이기도 하다.

성 안에는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왕궁 터와 연지 등 유적이 남아 있다. 연지 북쪽에는 기둥만 있던 '만하루'를 복원해 놓았다. 성곽 전체를 둘러보기 부담스럽다면 성곽길과 연결된 오솔길을 통해 일부 구간만 걸어도 좋다. 성곽길을 둘러보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공주 '산성시장'과 만난다.

무령왕릉과 왕릉원, 백제 중흥의 흔적

475년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웅진 천도를 단행했다. 이후 즉위한 무령왕은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이뤄내며 백제 부흥의 기반을 다졌다. 스스로 '강위강국(更爲強國)'을 선포할 만큼 국력을 회복했던 시기다.

그 흔적은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이 확인된 무덤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무령왕릉의 발견 과정에 얽힌 이야기는 유명하다. 1971년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도중 한 인부의 삽자루 끝에 단단한 물체가 닿아 파내다 보니 가지런히 쌓인 벽돌들이 드러났다. 고분군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후 발굴 작업을 거쳐 백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4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무령왕릉 전시관에 들어서면 실물 크기의 아치형 왕릉을 비롯해 발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놓은 전시물, 대표 출토 유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무덤 앞을 지키던 상상의 동물인 '진묘수'는 무령왕릉의 마스코트와 같다. 출토 유물을 통해 구척장신이었다고 알려진 무령왕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다.

무령왕릉 전시관을 나와 송산리 고분군 입구에 있는 '웅진백제역사관'으로 향하면 무령왕의 생애와 백제 문화가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미디어아트, AR증강현실 전시를 활용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구현해 놓아 아이 뿐 아니라 어른도 ‘열공’하는 분위기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만나는 백제의 미학

무령왕릉에서 이어지는 오솔길 끝에는 ‘국립공주박물관’이 자리한다. 박물관 내 ‘웅진백제실’은 무령왕의 생애와 웅진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무덤의 주인공이 제25대 무령왕과 왕비임을 알려주는 지석, 진묘수, 관꾸미개 등 대표 유물은 물론 왕릉 내부 구조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전시 공간도 인상적이다. 관람객이 직접 무령왕릉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38cm 크기의 ‘금동신발’이다. 박물관은 이를 ‘영혼을 위한 백제의 마지막 신발’이라 소개한다. 머리를 받쳤던 베개와 발받침, 다양한 부장품도 함께 전시돼 있어 당시 백제 문화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전시실을 지나 마지막 공간에 이르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백제의 미학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던 백제 문화의 정수가 유물 곳곳에 스며 있다.

해가 지고 유적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지면 공주의 밤은 또 다른 분위기로 바뀐다. 오래전 사라진 왕국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고도 곳곳에서 백제의 시간이 이어진다. ●

박근희 객원기자



무령왕릉 등을 재현해 놓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무덤 하나에도 감박하면서 견고한 백제의 미가 느껴진다.
사진 C영상미디어

공주 공산성

주소 충남 공주시 금성동 53-51 문의 (041)856-7700

가까이 있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서동공원과 공남지

백제 역사 탐방은 부여 백제유적 코스까지 이어진다. 백제시대 연못인 공남지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중 하나다. 백제의 마지막 도읍 '사비'의 유적인 공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정원이자. 백제 무왕이 궁궐 남쪽에 만들었다고 해서 '공남지'라 불려오고 있다. 못 가운데 신선사상을 표현한 섬이 화룡점정처럼 자리한다. 연꽃이 만발하는 7월에 '서동연꽃축제'에 맞춰 카누 체험 등을 해볼 수 있어 이색 여행지로도 인기다.



사진 부여군청

‘노인과 바다’의 도시? 이젠 청춘의 국제도시!

문화부 기자로 일하던 시절, 부산국제영화제 취재를 여러 번 했다. 낮에는 영화가 먼저였지만 밤은 늘 달맞이고개로 향했다. 달이 뜨면 해운대 미포나 청사포의 갯바위는 거대한 선술집으로 변했다. 영화제가 열리던 시절의 부산은 해방구였다. 낮 동안 어두운 극장에서 필름의 잔상을 쫓던 우리는 밤이 되면 약속이나 한 듯 해운대 달맞이고개로 모여들었다. 대포집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마시는 소주 한 잔에는 파도 소리가 섞였고 바다 위로 떠오른 둥근달은 그대로 안주가 됐다. 밤은 깊어가고 그 짝조름한 바닷바람 속에서 우리들의 영화도, 사랑도, 우정도 함께 깊어갔다.

그곳에서 만난 부산 사람들은 거칠었으나 다정했다. 툭툭 던지는 부산 사투리에는 문학과 영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녹아 있었다. 가객(歌客) 최백호는 노래 ‘부산에 가면’에서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릿결을 흘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이라며 흘러간 시간과 고향에 대한 지독한 향수를 노래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부산병’, 즉 고향에 대한 지독한 향수에 젖는다고 했다. 대도시의 화려함 바로 뒤편에 밀려오는 고독과 바다의 잔상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부산앓이’ 중

그런데 최근 이 ‘부산병(釜山病)’이라는 단어가 국경을 넘어 전혀 다른 맥락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을 넘어 서구의 젊은 여행자까지 누리소통망(SNS)에 “부산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벌써 ‘부산앓이’를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부산병 환자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과거 외국인에게 한국 여행은 곧 ‘서울 여행’과 동의어였다. 뽁뽁한 빌딩숲과 현대적인 세련미를 좇는 ‘서울병’이 유행했다면 이제는 부산이 새로운 그리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64만 343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부산 땅에 뿌리고 간 돈만 해도 1조 531억 원에 달한다. 대만(18.9%)과 중국(15.4%), 일본(14.9%)이 주축을 이루지만 최근에는 서양인의 발길도 눈에 띄게 늘었다.

어수용

조선일보에서 문학, 영화, books 등 문화부 기자를 오래했다. 지은 책으로 ‘탐독’ ‘파워 클래식’ 등이 있다. 주말뉴스부장, 문화부장, 여론독자부장을 거쳐 현재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올해의 기세는 더 무섭다. 1분기(1~3월) 동안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벌써 102만 3946명을 돌파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단 기간 100만 명 돌파’라는 대기록이다. 감천문화마을의 좁은 골목에는 한복을 입은 외국인이 가득하고 BIFF광장의 호떡집 앞에는 외국인이 매출의 95%를 채우며 길게 줄을 선다. 오죽하면 택시기사가 “어떤 날은 승객의 80%가 외국인이라 부산에 이렇게 외국인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다”고 혀를 내두를까.

외국인이 말하는 부산병의 원인은 명확하다.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거대한 대도시와 광활한 바다가 공존하는 도심형 해양도시’라는 점이다. 도심에서 지하철을 타고 몇 분 만에 백사장에 닿는 도시는 흔치 않다. 세련된 초고층 빌딩숲 바로 옆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의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고개를 돌리면 감천문화마을이나 청사포 스카й캡슐 같은 ‘인스타그램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한 풍경이 쏟아진다.

“삶과 냄새가 더 잘 보이는 도시”

여기에 서울과는 다른 부산만의 ‘맛과 멋’이 더해진다. 서울이 다소 차갑고 깎쟁이 같은 세련미를 풍긴다면 부산은 어딘가 느슨하고 여유롭다. 프랑스에서 온 한 관광객의 말대로 “서울보다 현지 사람들의 삶과 냄새가 더 잘 보이는 도시”다. 길을 헤매는 이방인에게 무뚝뚝하게 다가와 직접 길을 안내해주는 부산 사람들의 투박한 정(情), 그리고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와 돼지

(왼쪽) 5월 13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 ‘2026 해운대 모래축제’를
위해 설치된 모래 작품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오른쪽) 5월 13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뉴시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을 향한 시선은 어두웠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산에는 오직 ‘노인과 바다’밖에 남지 않았다는 자조와 자학이
팽배했다. 그러나 지금 부산은 그 ‘바다’를 무기로 세계의 젊은이들을
불러모으며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있다.”

국밥·밀면 같은 풍성한 로컬 먹거리가 여행자의 긴장을 해제시킨다. 대만 여행 커뮤니티에는 ‘항공권과 숙박, 식비를 합쳐 1만 5000 대만달러(약 71만 원)면 일주일을 풍족하게 머문다’는 가성비 후기가 넘쳐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을 향한 시선은 어두웠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산에는 오직 ‘노인과 바다’밖에 남지 않았다는 자조와 자학이 팽배했다.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고독한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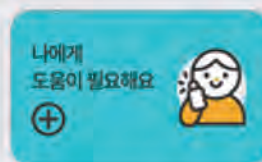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부산은 그 ‘바다’를 무기로 세계의 젊은이들을 불러모으며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있다. 피란 시절의 애환이 담긴 골목과 독특한 음식 문화가 시간의 이끼를 입고 가장 ‘힙’한 콘텐츠로 재해석된 덕분이다. 싱가포르의 여행 매체는 부산을 최고의 도시 관광지로 선정했고, 익스피디아 재팬은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로 꼽았다. 과거의 자조는 사라지고 이제 부산은 세계의 청춘들이 심리적으로 오래 붙들려 있고 싶어 하는 ‘기억에 남는 도시(Memorable City)’가 됐다.

단순히 ‘좋았다’는 감상을 넘어 ‘앓고 있다’고 표현하는 외국인의 고백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에너지와 인간미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증거다. 노인과 바다의 도시에서 이제는 세계의 청춘과 활력이 넘실대는 국제 관광도시로의 귀환. 달맞이고개의 달빛 아래서 우정과 사랑을 논하던 그 시절의 낭만이 이제는 전 세계 언어로 부산 앞바다를 채우고 있다. 최백호는 노래한다. ‘무작정 올라간 달맞이 고개엔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아무생각 없이 찾아간 광안리/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랜 바다에 비쳐 너와 내가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맞춰본다/ 부산에 가면’.

이번 여름엔 달맞이고개에 가야겠다. ●

나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을 쉽고 빠르게!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설치하세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복지위기알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도움요청 누가 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공무원, 이·통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요청 방법은?

- 앱 설치 후 도움 필요 대상, 위기상황 선택 및 도움요청 내용 입력 (비회원, 익명 도움요청 가능)



어떤 경우에 요청하나요?

- 나와 이웃이 생계곤란, 신체·정신건강, 고립 및 고독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때



무엇을 도와주나요?

-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등)
- 건강관리서비스, 돌봄 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별점 테리에 매출 반토막 악성 리뷰 어디까지 처벌되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기분 나빠질 것 같아 사장님께는 말 안 했지만 다시는 안 갈 겁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식당 리뷰에 비난 글이 올라오더니 유사 댓글이 잇따르면서 한 달 만에 매출이 30%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시대에 별점과 리뷰는 사업자에게 ‘제2의 간판’입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경쟁업체나 악성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훼손한다면 어떨까요? 허위·악성 리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악성 리뷰,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될까요?

물론 모든 악성 리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명예훼손-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배달 앱이나 포털에 올린 리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핵심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단순히 해

당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올렸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쓴 리뷰라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즉 진짜 경험을 쓴 리뷰는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허위일 때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큼니다.

② 업무방해죄-고의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경우

허위 리뷰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게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③ 모욕죄-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쓴 경우

‘위생 개념도 없는 쓰레기 집’, ‘사장이 사기꾼’ 같은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사용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쟁관계에 있는 족발·피자 가게 리뷰에 ‘허위광고’, ‘지인작업 매장’이라는 허위 글을 배달의민족 앱에 6일간 14차례 게시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를 함께

장변의 돈이 되는 Tip

악성 리뷰,
이렇게
대비·대응하세요

- ① **평소에 증거를 쌓아두세요.** 주방 CCTV 영상, 위생점검 기록, 직원 교육일지를 꾸준히 보관해두면 허위 리뷰에 즉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정 다툼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 ② **리뷰는 발견 즉시 캡처하세요.** URL이 보이는 전체 화면을 저장해두세요. 플랫폼이 자체 삭제하더라도 소송에 쓸 증거는 사업자가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 ③ **플랫폼 임시조치를 먼저 활용하세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최대 30일 게시 중단)는 플랫폼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이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 ④ **감정이 아닌 절차로 싸우세요.** 리뷰에 흥분해서 대댓글을 쓰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방법입니다.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정919 판결)

악성 리뷰, 이렇게 대응하세요

허위·악성 리뷰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와 신고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삭제 속도와 이후 법적 대응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1. 증거 확보부터 하세요. 캡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리뷰는 언제든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URL 주소창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날짜와 시간도 함께 남겨두세요. 동일 작성자가 여러 플랫폼에 반복 게시했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STEP 2. 플랫폼에 신고·삭제를 요청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은 허위 리뷰 신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신고할 때는 '어떤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플랫폼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신고 이력 자체가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STEP 3. 익명 작성자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라고 해서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플랫폼에 임시조치(최대 30일간 게시 중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검토를 거쳐 시행되므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플랫폼으로부터 작성자의 가입 정보와 IP 주소 등을 제공받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STEP 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함께 검토하세요.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위법 행위가 있음'을 공식 확인받는 방법이고, 민사소송은 실제 피해(매출 감소, 정신적 손해 등)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형사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민사 가처분(본 재판 전에 급하게 불법행위를 막는 조치)으로 리뷰 게시를 먼저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악성 리뷰 하나가 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온 사업자에게 법은 든든한 파트너가 돼줍니다. 다만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진짜 리뷰'와 '허위 리뷰' 사이의 경계를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절차에 따라 당당히 대응하세요. ●

장영화

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이자 창업 15년 차 기업가.

짜장면의 변심? 범인은 사라진 돼지기름!

어린 시절 외식의 끝판왕은 역시 짜장면이었다. 중국집 근처만 가도 춘장 볶는 냄새가 골목을 메웠다. 윤기 흐르는 면발을 젓가락으로 쓱 비벼 한입 넣으면 고소한 기름맛과 묵직한 감칠맛이 입안을 꽉 채웠다. 배달음식 리스트에서도 맨 앞자리를 지켰다. 철가방의 덜그럭 소리까지 짜장면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풍경이었다.

그 시절의 짜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한다. “요즘 짜장면은 예전 맛이 안 난다.” 그저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중식 셰프들조차 짜장면 맛이 변했다는 데 고개를 끄덕이니 말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기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20여 년 동안 중식에 몸담은 유명 셰프를 만났다. 그도 짜장면 맛이 변한 가장 큰 이유로 기름을 꼽았다. “과거에는 돼지기름인 ‘라드유’로 짜장면을 만들었어요. 짜장면은 기름이 전체의 맛을 좌지우지해요. 기름의 향이 맛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라드유는 콩으로 만든 식용유와 달리 고소한 풍미가 뛰어나요. 발연점이 높아 더 높은 온도에서 빠른 조리가 가능해 재료의 식감을 살리는 중국식 볶음요리 맛을 내기에도 좋아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웰빙’ 열풍 속에서 라드유는 ‘건강의 적’으로



게티이미지

“라드유를 둘러싼 부정적 정보 대부분은 뒤늦게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오히려 건강식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영국 BBC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음식’ 8위로 라드유를 꼽기도 했다.”

낙인찍혔다. 비만과 심장병·성인병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전문가들이 나서 라드유 섭취를 만류할 정도였다. 중국집은 앞다퉈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으로 갈아탔다.

라드유를 둘러싼 부정적 정보 대부분은 뒤늦게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오히려 건강식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D 등이 풍부할 뿐더러 뇌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콜린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콜린은 지방이 간에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돕고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다. 영국 BBC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음식(The world’s most nutritious foods)’ 8위로 라드유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한번 자리 잡은 부정적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라드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중식당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라드유로의 회귀를 원하지 않는 듯하다.

하얀 메추리알도 사라지고

기름이 바뀌자 짜장면의 색과 맛도 달라졌다. 춘장은 콩을 발효해 만드는 장인데 여기에 검은색을 내는 단맛의 캐러멜색소와 설탕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색은 더 검게 맛은 더 달게 변했다. 돼지기름으로 내지 못하는 감칠맛을 단맛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 돼지기름의 녹진함을 대체하기 위해 녹말물을 많이 넣으면서 소스의 질감도 달라졌다.

고명도 사라졌다. 예전에는 짜장면 위에 삶은 메추리알 하나가 당연하게 올라갔다. 작지만 존재감이 있었다. 짜장면 속 썬표 같은 존재랄까. 짜장 소스의 느끼함을 잡아내면서 젓가락질을 한 템포 쉬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메추리 농가가 줄고 가격이 오르면서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이 짜장면의 원조로 여기는 ‘옛날짜장’에도 오해가 있다. 큼직한 감자가 들어가는 ‘옛날짜장’은 사실 옛날 짜장이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짜장면이 대중화되면서 학생이나 노동자들이 짜장면을 찾기 시작했고 비교적 싼 감자를 크게 넣어 양을 불린 것이 1990년대 들어 옛날짜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했다.

맛은 변했지만 짜장면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임에는 분명하다. K-드라마 속 배우들이 후루룩 면을 비벼 먹는 장면 하나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집 앞에 줄을 선다. 검은색 소스를 면에 비벼 먹는 방식은 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다. 언젠가 다시 철가방 뚜껑을 여는 덜그럭 소리와 함께 돼지기름 향이 은근히 올라오는 갈색빛 짜장면을 만나고 싶다. 어쩌면 세계인들은 오래된 골목에 댄 돼지기름 냄새에 더 환호할지 모른다. ●

채상우
먹는 게 좋아 미식을 좇는
일간지 기자. '헤럴드경제'에
‘맛있는 이야기 미담:味談’을
연재 중이다.

도서관이 된 무대 세상 모든 마이너를 품다



연극 '사사로운 사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어느 여름날, 한 도서관의 보존서고가 침수된다. 보존서고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책들을 보관하는 공간이다. 어쩌면 버려질 날을 기다리던 책들. 하지만 도서관 사서들은 폐기 대신 복원을 선택한다. 임시 휴관을 결정한 뒤 젖은 책들을 하나씩 되살리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숨겨진 사연과 미묘한 감정이 서서히 드러난다.

연극 '사사로운 사서'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과 반대로 천천히 호흡하는 작품이다. 책을 복원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과거의 상처와 부채감, 트라우마를 거창한 사건 없이도 담담하게 마주하게 된다.

작품은 '마이너' 혹은 '비주류'로 불리는 존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놓인 또 하나의 조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다. 무대는 실제 도서관처럼 꾸며진다. 관객은 어느새 인물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건을 겪고 숨 쉬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수채화 같은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는 100분은 치열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어루만진다. 강현주 연출은 "책에는 수많은 생각과 사상이 담겨 있다"며 "한 톨도 버리지 않고 모두 복원하기로 한 사서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대정신이 공존하는 세상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기간 6월 20~28일 **장소**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연극

더 마더

프랑스 극작가 플로리앙 젤레르의 '가족 3부작' 중 하나다. 가족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온 '안느'는 아들의 독립, 남편과 소원해진 관계 속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간다. 가장 익숙한 관계인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상실과 고립, 기억의 균열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기간 5월 29일~6월 7일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X들의 번지점프

창작진과 배우들의 자전적 경험, 통계자료,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만든 모크-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처럼 보이지만 허구의 서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주거 문제, 은둔과 고립 등 청년 세대의 현실을 조명한다.

기간 6월 11~21일

장소 플랫폼74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비밀 첩보 작전 '냅코 프로젝트'에서 '암호명 A'로 불렸던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무대 위에 되살린다.

기간 ~7월 5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사진 컴퍼니연작

검색·명령 말고 대화를! 언어 배우기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사용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언어'다. 국내 공채 1호 프롬프트 엔지니어이자 언어학자인 강수진 박사는 프롬프트(AI에 입력하는 질문이나 지시문)의 본질을 '좋은 대화 상대가 되는 법'에서 찾는다.

강수진 박사의 신간 '지적 대화를 위한 AI 언어 수업'(어웨이크)은 단순한 프롬프트 기법만 소개하지 않는다. 대화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AI와 소통하는 방식을 풀어낸다. 저자는 언어학자의 시선으로 AI의 사고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대화의 원리 속에서 해답을 끌어낸다. 같은 질문이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AI가 탐색하는 의미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영어로 질문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통념과 달리 국어 특유의 표현 방식이 오히려 정교한 프롬프트 설계에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사 하나만으로도 문장의 강조점이 달라지고, 존댓말은 관계의 거리를 조율하며, 말하지 않은 행간조차 맥락을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미괄식 화법이나 '우리'처럼 주체가 모호한 표현 등 한국식 화법이 AI와의 대화에서 오류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짚어낸다.

AI를 도구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언어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다. 인문학적 감각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대화법을 제안한다.

전시

한성부입니다

한성부는 오늘날 서울시청처럼 조선 수도의 살림을 맡았던 기관이다. 중앙 행정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며 호적 작성과 주택 관리, 각종 민원 처리부터 왕도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까지 담당했다. 한성부의 다양한 기능과 기록 속에 담긴 당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기간 ~7월 12일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기억 전달자: 미디어라는 이름의 기계들

동명의 SF소설이자 영화 '기억 전달자'에서 영감을 받아 미디어가 우리의 기억과 문화유산을 기록·보존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미디어 장치 뒤에 가려진 기계 구조와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며 미래 세대에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한다.

기간 ~7월 19일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북합전시 5관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린다

백성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 풍속화 '단원풍속도첩'을 비롯해 김홍도의 대표작과 최초 공개되는 이순신의 친필 간찰 등 서예·회화를 아우르는 작품 96점이 전시 중이다. 6월 2일에는 '단원 김홍도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한 연계 강연도 열린다.

기간 ~8월 2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



'단원풍속도첩' 중 무동을 그린 그림.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영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열여덟 살이 되면 1년 동안 지구로 순례를 떠나야 하는 신인류의 세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유토피아에서 살아가던 일부는 순례 이후 돌아가는 대신 결핍과 감정이 존재하는 지구에 남는다. 김초엽 작가의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수록된 동명의 단편이 원작이다.

개봉일 6월 3일

신사: 악귀의 속삭임

일본 고베의 한 폐신사로 답사를 떠났던 대학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박수무당 '명진'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며 기이한 악귀와 맞선다. 현지 촬영을 통해 이국적이면서도 스산한 폐신사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개봉일 6월 17일

이근하 기자

공감

한 마디



855호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이 매우 시의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올바른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보호 강화에도 응원을 보냅니다.

김태경 강원 춘천시



854호 ‘금금이에게 배우는 간병의 기술’ 기사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보며 언젠가 저 역시 그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이 과정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풀어낸 저자의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간병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강원 동해시

공감

한 장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얹혀 있던 생각도 파도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말 없이 반짝이는 햇살과 잔잔한 물결만 바라봐도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이 놓이는 순간이 있지요,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일수록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동훈 전북 부안군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gonggam.korea.kr


 youtube.com/weeklygonggam


 facebook.com/wegonggam


 blog.naver.com/mcst_pr


 v.daum.net/channel/3094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한 마디’와 ‘공감 한 장’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3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노후준비, 막막하신가요?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하는
**무료 노후준비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재무



건강

노후준비
서비스
4대 영역



여가



대인관계

신청하기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통해 나의 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전문상담사와 1:1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광역)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 서울 성동구, 경기 부천시, 강원 춘천시, 대전 서구, 전북 김제시, 부산 북구-사상구

☎ 국번없이 1355 🌐 <http://csa.nps.or.kr>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www.ne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선거일 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 투표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